

평생 일할 수 있는 즐거움

한편에서는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고 호들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비부머가 무더기로 일자리를 떠나는 숨막히는 상황이다. 젊은이들에게는 먼 은퇴 후의 일보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재미없고 힘든 이유다. 심지어 하고 싶은 일이 뭔지조차 모르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오래 할 수 있을까? 이 책에는 수많은 역경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갈고 뚫은 최고령 프로 15명이 소개돼 있다. 60대에 시작해 지금까지도 만화를 그리는 91세의 만화가, 70년 동안 2만5천 시간을 비행한 88세의 파일럿, 음악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노래하는 103세의 성악가... 대체 어떻게 그 나이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들이 들려주는 '일에 대한 생각' '일의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 '평생 직업을 택하는 방법' 등을 듣고 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현재 하는 일에 불만이 있다면 천직을 만날 수 없다"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눈감아 주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힘들다고 투덜대는 후배들에게는 "딱 이틀만 더 해보라"고 토닥인다. 끝까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되며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인생은 반드시 좋게 흘러간다는 게 대선배들의 충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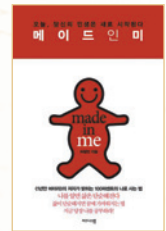
도쿠마서점 취재팀 지음 / 양영철 옮김 / 상상너머 / 248쪽 / 13,000원



메이드 인 미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싶으는가?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지, 왜 사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야만 자신에 대한 불신이나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타인의 비난이나 간섭에 흔들리지 않으며 타인의 기준을 기웃거리지 않고 남의 말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을 무기로 내세워 승부한다. 좋은 삶은 자신과 일대일로 직면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열정을 불사할 수 있는 일과 맞닥뜨리고 일에 흥미를 느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고수하되 해법은 철저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연간 수백 회의 강연을 소화하는 경영컨설턴트이자 리더십·라이프 코치인 저자는 이 책에서 스스로 꿈은 멘토 7명의 조언과 더불어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털어냈다. 저자 본인부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여러 번 때려치우고 결국은 1인 기업가로 나섰기에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남을 존중하되 일정한 선을 그으라는 충고는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허병민 지음 / 비즈니스맵 / 248쪽 / 12,000원



자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फल을 맨발로 걸어 다니거나 하루 종일 물새 관찰에 몰두하는 저자는 독일 최고의 진화생물학자다. 개 한 마리나 길들인 까마귀를 벗 삼아 자연 속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비고 다닌 덕분에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고 특정 동물만 식용으로 키우는 이유, 오직 인류만이 쓰레기를 만드는 까닭 등 놀라운 자연의 수수께끼와 진화의 비밀 51가지를 펼쳐 놓을 수 있었다. 과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성찰까지 덧붙여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느낌마저 자아낸다. 자연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가르쳐 주는 비밀의 문을 엿보고 나서려는 순간 또 다른 호기심의 문이 열리는 식이다. 그 범위는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던 시절에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시에 출몰하는 배경이나 유전공학과 멸종에 이르기까지 무척 광범위하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의문을 오히려 반가워한다. 인류와 동·식물, 자연에 대해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자연보호이기도 한 저자에게는 종의 다양성을 지켜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화두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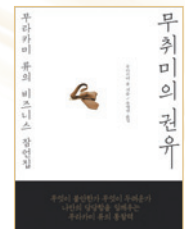
요제프 H. 라이히홀프 지음 / 박병화 옮김 / 이랑 / 304쪽 / 15,000원



무취미의 권유

우리나라에서는 소설가로만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는 영화감독, TV 토크쇼 진행자, 음반제작자, 사진작가 등 팔방미인으로 알려져 있는 저자가 이번에는 기존 작품들과 확연히 다른 책을 들고 나왔다. 협상, 여학 실력, 인맥, 접대, 기획, 전직 등 직장인이 흔히 갖는 고민들을 날카롭게 해부하며 본질을 짚어 낸 것이다. 상식과 통념은 없고 대신 배짱과 내공이 가득하다. 예컨대 일이 아닌 취미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환희를 맛볼 수 없으니 차라리 무취미로 살아가라고 일갈한다. 바쁜 일정을 관리할답시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선순위에 매기라고 호통도 친다. 우선순위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라니 딱히 반박할 논리도 마땅찮다. 부하직원이 일을 못하면 야단칠 게 아니라 가르쳐야 하지만 할 줄 아는데도 안 하면 그때는 가차 없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충고도 곁들인다. 후배 직장인이라면 선배에게 들을 수 없는 따끔한 직언이지만 선배 직장인이라면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될 만하다.

무라카미 류 지음 / 유병선 옮김 / 부키 / 176쪽 / 12,000원



남자의 물건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이자 사회적·문화적 현상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으로도 활약하는 저자의 걸쭉한 입담을 거치면 어려운 이론이나 단순해 보이는 현상도 쉽고 의미있는 주제로 변신한다. '유쾌하고 엉뚱한 지식인'으로도 명성이 높은 그가 요즘 주목하는 것은 자신을 비롯한 대한민국 남성들의 심리, 힘든 직장생활, 자신만 따돌리는 아내와 자식들, 술을 마셔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 치열하게, 아니 비굴함을 감수하며 열심히 살아온 삶이 나이 들수록 허전하기만 하다. 모든 게 정치, 경제, 사회 탓이라는 생각에 툴하면 안성을 높여 보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오지랖 넓은 저자가 또 나섰다. 지친 내면을 위로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해법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내 얘기'다. 책의 제목으로 붙인 '남자의 물건'이란 얘기보따리를 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13명의 남자는 자신만의 소중한 물건에 대해 얘기한다. 자기만의 역사가 담긴 만큼 숨김없는 삶을 가감 없이 보여 주는 물건들이다. 문화평론가 이어령의 책상에서는 대학자의 근원적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일일이 먹을 갈아 글씨를 쓰는 성공회대 석좌교수 신영복의 벼루에서는 감동이 물씬 배어 나온다.

김정은 지음 / 21세기북스 / 335쪽 / 15,000원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인문학은 어려우며 경제학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만약 경제학자가 인문학을 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학자인 저자들은 도식적인 경제학의 틀에 인문학의 다양한 시각을 결합시켰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토토는 짝사랑하는 여인의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기다린 끝에 사랑을 얻지만 결국 헤어지고 만다. 안타까운 운명에 가슴이 저려 오려는 순간, 저자들은 토토의 기다림과 헤어짐을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한계효용의 원리를 설명한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고민 또한 경제 문제일 때가 적지 않고 신화 속의 신들은 알고 보면 경제원리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한다. 오딘의 한쪽 눈에 기회비용을, 지하세계를 떠돌던 오르페우스에게 매몰비용을, 헤라클레스에게 비교우위를 각각 대입하는 식이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 시리즈에 종종 등장하는 마법부를 통해서도 정부와 기관의 관계를 설명했다.



김훈민·박정호 지음 / 한빛비즈 / 336쪽 / 15,000원

대중의 직관



응용시스템을 분석하는 국제연구소(IASA) 선임연구원으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사건들을 연구하는 게 저자의 일이다. 하지만 그가 주목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적인 예측이 아니라 대중의 감각이다. 집단의 분위기가 그 사회가 앞으로 겪게 될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탓이다. 마치 야생동물들이 자연재해를 예감하고 인간보다 앞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분위기가 부정적일 때에는 회색, 갈색 계통의 어두운 자동차 색이 유행하고 낙관적일 때는 연색, 흰색, 빨간색처럼 밝고 선명한 차가 인기다. 책에 소개된 최근 50년간의 다우존스지수와 많이 팔린 자동차 색깔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초고층건물도 흥미롭다. 2000년대에 두바이가 지은 초고층건물은 낙관적인 사회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착공됐으나 완공 무렵에는 세계 각국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렇다면 2015년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타워의 경우는 어떨까? 지금까지의 사례를 종합해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첫 삽을 뜨는 순간이야말로 최대한 빨리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라는 게 저자의 조언이다.

존 L. 캐스터 지음 / 이현주 옮김 / 반비 / 384쪽 / 16,000원

나를 세우는 옛 그림

여행사를 운영하는 저자는 세상살이가 힘겨웠던 어느 날 원가에 홀린 듯 미술관을 찾았다가 옛 그림에 '꽃혔다'. 화가들이 그림 너머로 "관찰다"며 자신을 토닥여 주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림애호가를 넘어 아예 대학원에서 전공까지 해 버렸다. 그림이 삶이고 삶이 그림인 경지를 깨달은 그에게 옛 그림은 선생이자 친구, 거울이자 나침반이다.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도 옛 그림 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할 수밖에. 이 책에서 그는 '몽유도원도' '매천 황헌 초상' 등 옛 그림 60여 점의 의미와 창작 배경을 소개하고 그림의 가르침도 꼼꼼히 찾아낸다. 김홍도의 '모구양자도'를 보면서 아들로써의 자신을 돌아보고, 윤두서의 '자화상'을 통해서 중년의 삶과 자세를 되새긴다. 하지만 옛 그림 감상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표현기법이 오늘날과 많이 다른 탓이다. 바로 이때 저자는 우리에게 '열쇠' 3개를 쥐여 준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것, 회화사의 맥락에서 볼 것, 무엇보다도 자기 삶을 반추해 볼 것! 총 3부로 나눠 위료가 되는 옛 그림, 굴곡진 삶을 살다간 화가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옛 그림, 슬픔과 그리움을 승화시켜 눈물을 닦아 주는 옛 그림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손태호 지음 / 아트북스 / 332쪽 / 18,000원